# 운영체제론 개인 과제 3 보고서

제출자: 이찬영 (2019098068, ICT 융합학부)

## 1. 본인이 설계한 두 가지 해법에 대한 설명

### <bul><bounded\_buffer.c>

#### (code line: 43)

Bool 타입의 원자변수인 lock을 선언합니다. 이 lock 변수는 이후에 스핀락에서 다른 스레드가 버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code line: 53~56)

생산자 스레드로 실행할 Producer() 함수 내에서 CAE 명령어를 사용하여 스핀락을 구현하여 동기화를 실행합니다. 동기화란 락을 획득하려는 스레드와 이미 락을 가진 스레드 간의 동시 접근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bool 타입 expected 변수를 false로 설정해 줍니다. 그 이후에 atomic\_compare\_exchange\_weak 함수 내에서 만약 lock == expected이면, lock = true로 치환되고 함수는 true를 리턴하게 되어 while문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반면에 lock != expected이면, expected = lock으로 치환되고 함수는 false를 리턴하게 되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lock 변수를 변경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락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counter은 producer 스레드와 consumer 스레드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producer 스레드에서는 counter < BUF\_SIZE (메모리 공간이 buffer 크기보다 작을 때, 즉 생산할 공간이 있을 때)일 때, 버퍼에 넣고 관련 변수를 갱신해야 중복 생산 ERROR를 피할 수 있습니다.

#### (code line 72, 81)

저는 critical section(임계구역)을 code line 56~80으로 보았지만 사실 printf("<P%d,%d>₩n", i, item); 까지 임계구역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출력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다음에 확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스레드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lock = false로 설정해주어 락을 해제합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스레드가

while(alive) 안에서 실행되다가 alive = false; 일 때, pthread\_exit 함수를 호출하여 종료합니다. 또한 if문 내에 중복 생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lock=false; 를 해줌으로써 다른 스레드가 버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printf("<P%d,%d>₩n", i, item); 위에까지 lock=false; 로 임계구역을 설정해 주면, main 함수 내에서 usleep()을 조정해 주어야 item이 50개 이상 출력됩니다!

#### (code line 95~98)

소비자 스레드로 실행할 Consumer() 함수 내에서 CAE 명령어를 사용하여 스핀락을 구현합니다. 이후에는 producer() 함수 내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counter은 producer 스레드와 consumer 스레드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consumer 스레드에서는 counter > 0 (메모리 공간이 0보다 클 때, 즉 소비할 것이 있을 때) 일 때, 버퍼에서 아이템을 꺼내야 중복 소비 ERROR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 (code line 109, 118, 126)

임계구역 이후에는 lock = false로 설정해주어 락을 해제합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스레드가 while(alive) 안에서 실행되다가 alive = false; 일 때, pthread\_exit 함수를 호출하여 종료합니다. 이후에는 bounded\_buffer.skeleton.c에서 설계한 로직대로 코드가 구현됩니다. 나머지는 위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code line 72, 81) 설명 참조)

#### <br/><bounded\_waiting.c>

## (code line 33~34)

Bool 타입의 원자변수인 lock과 waiting 배열을 선언합니다. lock은 스핀락을 구현하는 변수이며, waiting 배열은 스레드 i가 임계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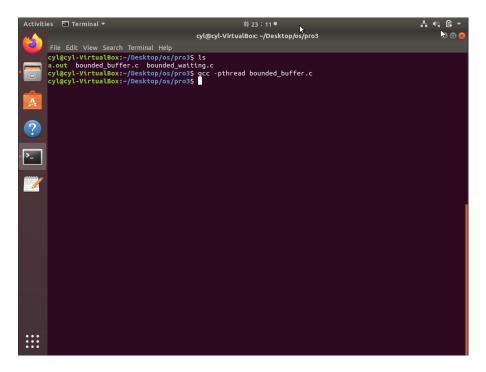
#### (code line 45~52)

다음 차례의 스레드를 가리키는 변수 j를 선언해 주고, 스레드 i가 임계 구역에 진입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waiting[i] = true; 를 선언해 줍니다. 이후에는 lock 변수에 대한 atomic compare\_and\_swap 연산에서 예상값을 나타내는 expected = false로 설정해준다. 그 후에는 while 문 내에서 atomic\_compare\_exchange\_weak 함수는 lock 변수와 expected 값을 비교하고, 두 값이같으면 lock 값을 true로 설정하고, 다르면 expected 값에 현재 lock 값을 저장합니다. 이 함수는약한 비교-교환 연산을 수행하므로 비교시에 expected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교환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while문은 스핀락을 통해 임계 구역에 접근하기 위한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Code line 52에서는 임계구역에 진입한후, 스레드 i는 waiting[i] 값을 false로 설정하여다른 스레드가 해당 스레드를 기다리지 않도록합니다. 이를통해 다음 스레드가 임계구역에 진입할수있도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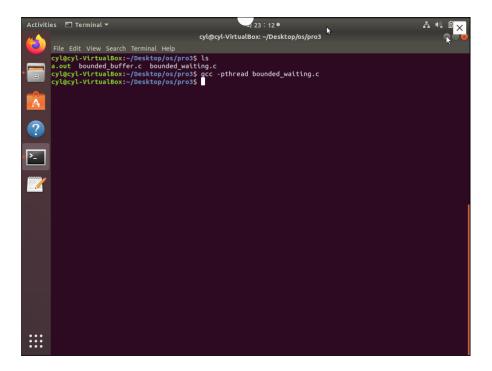
## (code line 64~72)

해당 부분은 스레드가 critical section(임계구역)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후 락을 양도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j변수를 (i+1) % N으로 설정하여 다음 스레드의 인덱스를 계산하며 다음 스레드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while((j!=i) &&!waiting[j])를 통해 검사합니다. 반복문을 통해 얻은 다음 스레드인 j가 현재 스레드(i)와 같은 경우, (즉 맨 마지막) 모든 스레드가 임계구역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상태이므로 lock 변수를 0으로 설정하여 락을 해제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스레드가 진입할 수 있도록 waiting[j]값을 false로 설정합니다. 이후에는 bounded\_waiting.skeleton.c 에서 설계한 로직대로 코드가 구현됩니다.

## 2. 컴파일 과정을 보여주는 화면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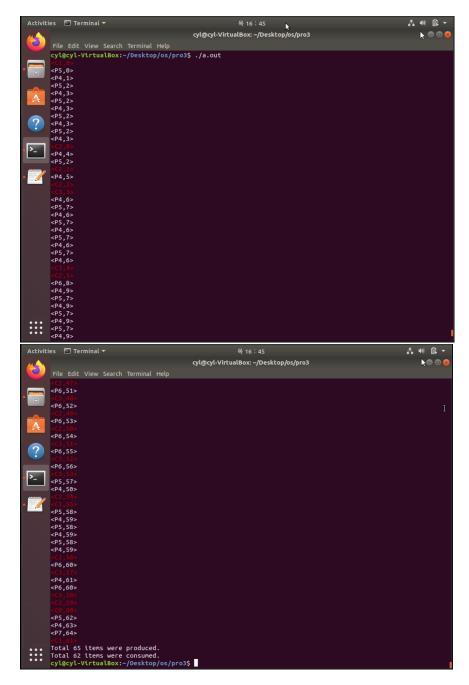
아무 오류 없이 bounded\_buffer.c 컴파일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오류 없이 bounded\_waiting.c 컴파일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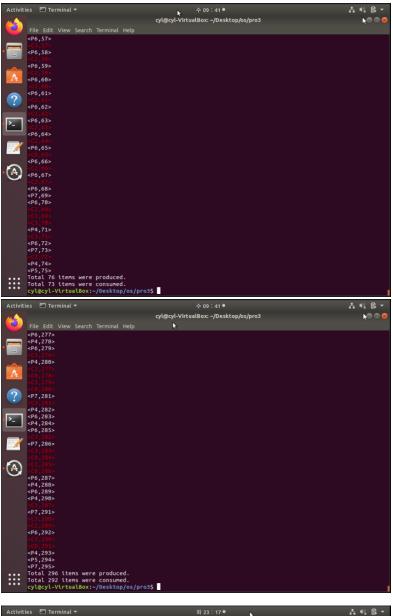
## 3. 실행 결과물의 주요 장면을 발췌해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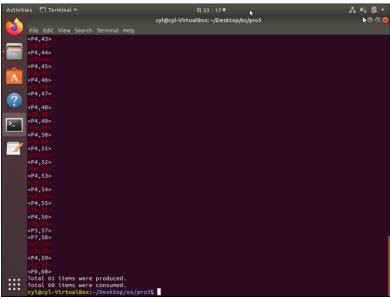
### <bul><bounded\_buffe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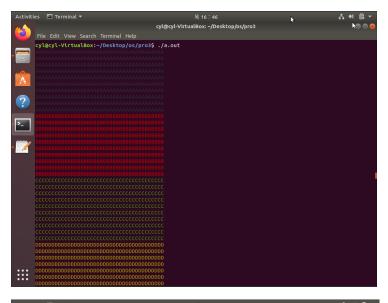
생산되고 소비되는 개수가 실행할 때마다 랜덤하게 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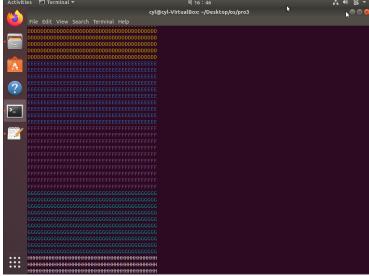
또한 생산되고 소비되는 순서가 매우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중복소비, 중복생산 ERROR는 뜨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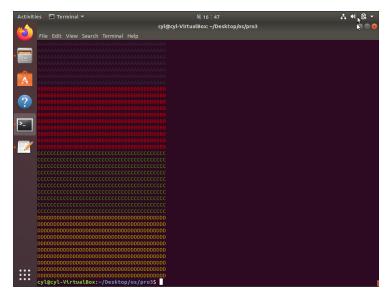




## <br/><bounded\_waiting.c>







실행할 때마다 스레드는 A~H까지 차례대로 서로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잘 지켜서 여러 번 구분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꽤 많은 수의 출력이 나옵니다.)

순서가 여러 번 출력되는 이유는 스핀락이 임계구역에 진입하기 위해 계속해서 루프를 돌면서 상태를 체크하지만, 락을 얻지 못한 여러 스레드는 계속해서 또 루프를 도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출력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락을 얻지 못한 스레드는 여전히 루프를 돌면서 waiting 배열의 값을 체크하다가 락을 획득하는 순간 임계구역에 진입하여 문자를 출력하고 나오게 되며 여러 스레드들이 중복해서 문자를 출력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 4. 과제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문제점과 느낀 점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스핀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전 과제에서 스레드를 활용하는 것은 많이 했었지만 critical section이라는 임계구역을 설정해 놓고 스레드가 중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문제는 이전에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스레드가 침범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침범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과제를 수행하던 중 스핀락 구현에는 꼭 한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스핀락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알 수 있었습니다.

동기화란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독립적으로 critical section을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에러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스핀락은 context switch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CPU 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LOCK이 반환될 때까지 계속 확인하면서 루프를 돌고 있는 busy waiting으로 CPU를 쓸데없이 낭비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핀락은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제 수행 중, bounded\_buffer.c에서는 임계 구역을 잘 설정하지 못해 계속 ERROR가 생기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consumer() 스레드 함수와 producer() 스레드 함수가 동시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스핀락을 어떻게 걸어줄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임계구역을 어디까지로 설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에서 item 출력 개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호 배제를 한 상태에서 출력을 하느냐 아니면 상호 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상호 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상호 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하면 빠져나가는 스레드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스템 상 당연한 결과

로 적은 수의 item이 출력됩니다. 이 문제는 main 함수 내에 usleep() 지연 시간을 조정해 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Bounded\_waiting.c에서는 ppt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별 어려움 없이, compare\_and\_swap() 함수를 atomic\_compare\_exchange\_weak() 로 바꿔서 스핀락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은 과제 수행과 더불어 운영체제 수업에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